



본회 이영순 식약청장 면담 '절편녹용' 의견개진

- 절편녹용 완벽한 품질 기준 마련 촉구, 동건녹용은 적극적인 지원을-



본회는 지난 9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영순 청장과 면담을 갖고 절편녹용 품질기준 제정을 비롯, 국산녹용 한약규격품화 사업 등 식약청 소관 양록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회는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시 예상되는 국내 양록농가의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전통한방에 근거한 녹용의 효능 자료를 토대로 품질기준을 제정할 것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생녹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외산녹용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결진공건조 공법으로 제조된 국산녹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요구했다.

본회는 식약청의 절편녹용 품질기준 제정 마련과 관련해 “완벽한 품질기준 제정을 위한 녹용 효능 연구, 지표물질 선정, 품종별·산지별·사료종류별·건조방법별 녹용의 효능 차이 등의 연구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분만으로 품질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은 뉴측의 요구



만을 반영한 성급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완벽한 품질기준 마련전까지 절편녹용 수입 불허를 주장했다. 또한 외산녹용과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협회가 적극 추진중인 동결진공건조녹용에 대해 조속히 원료의약품 제조허가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전체 공정중 동결진공건조 공법이 15%에 불과한 수입녹용 제조업체 제품을 동결진공건조 녹용으로 인정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동결진공건조 녹용 기준 설정을 촉구했다.

수입생녹용의 용도의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부적합 판정 녹용과 검사도 끝마치지 않은 수입녹용이 시중에 공공연히 유통됨에 따른 악순환을 반복치 않기 위해 현행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선검사 후통관 제도」로 개정, 부적합 녹용 유통을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축산신문에 게재된 ‘절편녹용 수입허용 않겠다’는 이청장의 발언 진위 여부를 묻는 한편 절편녹용 수입추진에 대한 청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순 식약청장은 절편녹용 협상은 국내 양록인 및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청장은 국산녹용의 근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외산녹용과 국산녹용



▲ 왼쪽은 본회 김은성 회장, 오른쪽은 이영순 식약청장

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 수입생녹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생산자 단체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청장은 ‘절편녹용 수입허용 않겠다’는 축산신문 보도 내용과 관련, “순록 및 녹용 하대 등이 절편녹용에 섞일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안이 없는 이상 수입을 허용치 않겠다는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 해명하고 “이유야 어떻든 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전국의 양록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답에서 양록협회는 김은성 회장을 비롯, 김수근 부회장, 이성복 이사, 나호주 이사, 성락 사무총장이, 식약청에서는 이영순 청장, 하광원 생약평가부장, 이상열 의약품안전과장이 배석했다. (회답 내용 다음호 상보) **한국양록**